

SK, 상반기 대기업집단 시총 증가 1위...65조 ↑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 366개 상장사 분석 반도체 업황 회복 HBM 호재 SK하이닉스 영향 커

올해 상반기에 대기업 집단 중 상장사 시총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SK그룹으로 나타났다. 9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상장사를 보유한 80개 대기업 집단 소속 366개 상장사의 시총을 분석한 결과, 이들 기업의 시총은 이달 5일 증가 기준

총 1천937조7천533억원으로, 지난 1월 2일(1천834조3천927억원)보다 103조3천629억원(5.6%) 늘었다. 그룹 시총 순위에서는 삼성그룹이 72조5천250억원으로 부동의 1위를 지켰다. 이어 2위 SK그룹 247조2천104억원, 3

위 LG그룹 163조3천307억원, 4위 현대차그룹 160조1천852억원, 5위 포스코그룹 69조4천660억원, 6위 HD현대그룹 53조202억원 순이었다. 올해 상반기에 시총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SK그룹이다. 21개 상장사 시총이 연초 181조7천182억원에서 6개월 새 65조4천922억원(36%) 증가했다. SK그룹 시총 증가액은 반도체 업황 회복과 고대역폭 메모리(HBM) 호재를 타고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른 SK하이닉스의 몫이 크다.

이 기간 SK하이닉스 시총은 103조6천675억원에서 171조8천869억원으로 68조1천410억원(65.7%) 늘었다. 그러면서 단일 종목 시총이 LG그룹(163조여원)이나 현대차그룹(160조여원)의 전체 시총도 뛰어넘었다. 삼성그룹 시총은 연초 665조2천847억원에서 56조2천403억원(8.5%) 늘어 증가액으로는 2위였다. 삼성그룹에서는 삼성전자 시총이 475조1천947억원에서 519조9천681억원으로 44조7천734억원(9.4%) 늘며 시총 증

가를 이끌었다. 현대차그룹 시총은 연초 131조367억원에서 29조1천495억원(22.2%) 증가해 시총 증가액이 세 번째로 많았다. 자동차 판매 호조 등에 현대차(16조4천339억원 ↑), 기아(11조2천626억원 ↑), 현대글로비스(2조1천938억원 ↑) 등 주요 계열사 시총이 증가세를 보였다. 시총 증가율에서는 HD현대그룹이 56.8%로 1위를 차지했다. 소속 상장사의 시총은 연초 33조8천192억원에서 53

조202억원으로 19조2천10억원 증가했다. 지난 5월 HD현대마린솔루션이 상장하면서 상장사가 9개로 늘었고, 인공지능(AI) 전력 관련주로 부상한 HD현대일렉트릭 등의 시총이 불어났다. 반면 LG그룹(23조409억원 ↓), 포스코그룹(21조5천956억원 ↓), 예코프로그룹(20조1천617억원 ↓), 카카오그룹(14조7천778억원 ↓), 네이버그룹(9조6천471억원 ↓) 등은 상반기에 시총이 줄어들었다. /연합뉴스



여성용 수영복 기능·내구성 차이 '뚜렷' 한국소비자원이 9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브랜드의 여성용 수영복 10개 제품에 대한 기능·내구성 등 품질 및 안전성 시험 결과를 발표했다. 시험 결과, 기능성과 내구성에 제품 간 차이가 있었고 일부 제품은 표시사항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날 소비자지원 직원이 제품을 살펴보는 모습. /연합뉴스

“2030년대 소비자 80%가 AI 활용”

에릭슨 컨슈머랩 ‘10대 소비자 트렌드’ 보고서

2030년대에는 소비자 10명 중 8명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삶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글로벌 통신장비 기업 에릭슨 산하 에릭슨 컨슈머랩은 9일 전 세계 13개 도시의 얼리어답터 6천5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30년대 10대 소비자 트렌드: AI가 주도하는 미래’ 보고서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80%는 20

30년대에 들어서면 집이나 주식을 사는 등 삶에 있어 중요한 결정을 할 때 AI 시뮬레이션을 활용할 것이라고 답했다. 응답자 중 51%는 AI에 대해 희망적이었으며, 34%는 두려움과 불안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AI에 희망적인 사람 가운데 37%는 2030년까지 삶에서 AI를 사용하는 방식을 온전히 제어할 수 있다고 답했지만,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 중에서는 27%만 이 그렇다고 했다.

또 AI를 가능한 한 많이 활용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AI에 대해 희망적인 응답자 중에서는 53%, 두려움을 느끼는 응답자 중에서는 28%로 나타났다. 한편 에릭슨 컨슈머랩은 AI 시대 10대 소비자 트렌드로 ▲AI 쇼퍼 ▲생성형 패션 ▲감성적 시나리오 ▲휴먼 디지털 트윈 ▲프로그래밍 자녀 ▲AI 통치 ▲관한이 없는 직원 ▲데이터 무질서 ▲AI 통제 상실 ▲키 관리자를 제시했다. 에릭슨 컨슈머&인더스트리랩 리서치 의제 및 품질 총괄 마이클 비요른은 조사 결과에 대해 “통신 업계는 소비자가 AI에 가지고 있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국토부 ‘페달 블랙박스’ 활성화 검토

급발진·오조작 원인 규명...국내외 완성차 제조사에 설치 권고

정부가 반복되는 차량 급발진 또는 페달 오조작에 따른 교통사고의 분명한 원인을 가리기 위해 ‘페달 블랙박스’ 도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국내외 완성차 제조사에 출고 시 페달 블랙박스 장착을 재차 권고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완성차 제조사들에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권고한 데 이어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설득했으나, 제조사들은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완성차 제조사들은 사고기록장치(EDR) 등으로 사고 원인을 분석할 수 있고,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려면 자동차 설계를 변경하는 등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자동차 가격 인상 요인이 될 수 있고, 수입차에 이 같은 규제 적용 시 통상 마찰로 이어질 수 있는 등 각종 부작용을 감안한 데 따른 것이다. 외국에서도 페달 블랙박스 설치가 의무화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국토부는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운전자에게 자동차 보험료 인센티브를 제공, 장착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정지권에서는 페달 블랙박스 장착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민의힘 이현승 의원은 이날 자동차 제작·판매자가 의무적으로 신차에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연합뉴스

목포상의·목포노동청, 지역 기업 현안 협의

목포상공회의소는 9일 이재희 목포고용노동지청장을 예방해 지역 주요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고용·노동·행정 등 주요현안에 대해 협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정현택 목포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3월 목포고용노동지청과의 간담회에서 주로 다뤘던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후 실무적 문제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지역기업의 노동행정에 대한 애로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인들이 지속적인 기업성장을 이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진다”며 “현재 근로자 권익 보호 중심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기업

대표들의 입장도 배려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으로 기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지원과 보호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이재희 목포고용노동지청장은 “목포상공회의소와 목포고용노동지청은 수시로 교류하고 소통하는 협력의 파트너 관계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기업과 노동자 간의 노동관계를 조율하고 공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기업들에 대한 지도와 단속 강화보다는 제도 위주의 온화한 행정을 펼쳐 기업들이 지역경제 성장을 돕도록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목포=정해선 기자

상반기 일본 여행 카드 매출 ‘역대급 엔저’에 2배 늘었다

‘역대급 엔저’에 일본으로 향하는 여행객이 늘어나면서 일본에서 쓴 카드 매출액이 작년의 2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하나카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하나카드의 체크카드·신용카드의 일본 현지 오프라인 이용금액은 4천314억원으로, 작년 상반기 이용금액(2천69억원)의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일본에서 카드를 쓴 하나카드 고객 수 자체가 작년 상반기 2만5천507명에서 올해 상반기 4만7천255명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난 영향이다. 1인당 이용금액도 작년 상반기 9만5천745원에서 올해 상반기 100만9천677원으로 10만원 가까이 증가했다. /연합뉴스

함께하는 100년 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꼭!

NH 국민은행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꼭! 바로 바로 확인까지 꼭!

zgm, 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 전용 상품
- 국내·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 없음

(무)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1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0%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일: 2023년 6월 기준)

햇살론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맡아주세요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사업자 및 근로자를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 산 지 점 062)526-0222~3	유 동 지 점 062)512-1984~5	유 덕 지 점 062)373-3235~6	운 암 박산지점 062)529-5335~6
지 평 지 점 062)381-8212~3	동 립 지 점 062)513-8521~3	동 운 지 점 062)528-2640~2	빛 고 을 로 지 점 062)531-1213~5
상 촌 지 점 062)381-6551~2	운 암 지 점 062)527-3295~6	배 들 지 점 062)381-1971~2	양 등 스타 트 열 지 점 062)361-4472~4
와 정 지 점 062)372-0421~3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상 무 동 지 점 062)372-3741~2	기 아 자 등 차 지 점 062)385-4977~8

지역 대표 금융 기관 **서광주농협**